

## 아우디코리아, CO<sub>2</sub> 상쇄금 5000만원 기부



아우디코리아(대표 요하네스 타머)는 12월13일 이산화탄소(CO<sub>2</sub>) 상쇄금 5000만원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전달했다.

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있는 <탄소중립 프로그램>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4월 1차로 50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.

국내 자동차 브랜드 중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기업은 아우디코리아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.

탄소중립 프로그램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함께 일상에서 에너지 소비로 발생하는

이산화탄소를 상쇄시키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 숲 조성이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.

총 1억원의 상쇄금은 약 6666톤(1만5000원/톤)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것이며, 30년생 신갈나무 66만6000여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라고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말했다.

<화학저널 2012/12/13>